

저금리가 남긴 것

# 글로벌 버블경제 경착륙 우려... 경기침체 장기화 불가피

부동산버블 금융위기 초래 목소리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보다 ↓  
경제 위기 후 '애프터쇼크'도 우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버블경제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여전히 정책 금리가 낮은 수준인데 통화정책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위기 시 리스크 관리가 힘들 수 있어서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버블경제가 '경착륙'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는 2.8%로 예상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 전망치(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그렇다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OECD의 복합경기선행지수(CU)를 보면 이들 국가는 지난 해 4분기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해당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경기 침체 상태라는 뜻이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학자들은 위기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충격인 '애프터쇼크(After shock)'를 우려하고 있다. 버블 경제의 리스크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의 위기는 '부동산'에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속 가계는 무리하

게 돈을 빌려 집을 샀고, 그 기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져갔다.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보면 한국의 서울은 11.2배로 미국 LA, 영국 런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을 떠받쳐왔던 유동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대 금리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변동형 주택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급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 11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1.96%로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잔액 기준 역시 1.95%로 2015년 9월(1.98%) 이후 3년 2

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금융권의 주택담대 대출도 일제히 오름세다. KB국민은행·농협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대대출 금리(코픽스신규 기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9%~4.68% 수준에 다달았다.

시장에서는 연내 주담대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고위험 가구' 비율이 전체 부채 가구의 3.1%(34만6000가구)에서 3.5%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유도 저금리 기조속 풍부한 유동성으로 급등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KIEP는 버블 위험의 경착륙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실물경제 부진이 오래갈 위험이 크다고 봤다.

한 경제 전문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통화정책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정책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경제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만약 버블경제가 빠르게 붕괴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경제 부흥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 더 큰 경제위기가 올 수 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제로페이에 도전장... 'QR스캔 결제'

앱투앱 방식으로 프로세스 최소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맞서 새로운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씨·롯데·신한카드사는 7일부터 앱투앱(App to App) 간편결제 서비스인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QR 스캔 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테이블이나 계산대에 있는 QR코드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푸드트럭과 같은 카드결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비씨·롯데·신한카드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이용하면 되고, 가맹점도 별도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가맹점 전용 앱을 가맹점주의 스마트폰에 받으면 된다.

앱투앱(App to App) 방식을 적용해 기존 카드 결제에 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QR 결제 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도 할인 적용한다.

특히 'QR 스캔 결제' 서비스는 동일한 규격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참여 카드사 중 한 곳의 가맹점 전용 앱만 설치하면 다른 카드사의 QR페이 결제 관리, 매출내



'QR 스캔 결제' 서비스.

역 조회 등 업무도 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비씨·롯데·신한카드사는 QR결제 코드(스티커 부착형, 스탠드형), 안내장 등이 포함된 '카드사 공통 QRpay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QR 결제 가맹점 가입 및 QRpay 키트 신청은 신한, BC, 롯데카드 등 각 카드사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QR 결제를 하면서도 원래 사용하던 신용, 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특히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제 서비스"라며 "향후 가맹점과 상생은 물론, 고객이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생보가입자 사망연령 59세 10년 새 7.5세 높아졌다

보험개발원 10년 주요 보험지표  
사망원인 암 1위·심장질환 2위  
자살은 5위에서 3위로 올라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로 인한 사망원인 순위는 5위에서 3위로 올랐다. 또 사망률 개선과 저출산 기조로 보험가입자의 평균 사망 시 평균 연령과 신규 보험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늘어났다.

6일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통계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주요 보험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생명보험 가입자 10만명 당 57.3명은 암으로 사망했다. 2007년(75.9명)과 비교해 18.6명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망원인 1위였다.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 사망자는 2017년 13.4명으로 10년(19.6명) 전과 순

위는 같았다.

사망원인 중 자살은 2007년 8.3명에서 2017년 10.2명으로 상승하며 5위에서 3위로 크게 올랐다. 자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2008년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10만명 당 자살률은 지난 2008년 8.6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늘었다.

폐렴 사망자도 2007년 3.9명에서 2017년 5.7명으로 증가하며 10년 새 7위에서 5위로 올랐다. 고령자 증가와 함께 사망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의 사망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은 2007년 10만명 당 197.4명에서 2017년 134.8명으로 연평균 3.7% 감소했다.

보험가입자의 평균 사망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사망 시 평균 연령은 지난

2007년 51.3세에서 2017년 58.8세로 10년간 7.5세 증가했다.

반면 저출산 기조로 저연령 보험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생보보험 가입자 중 15세 이하 어린이 보험가입자 수는 2007년 537만명에서 지난 2017년 374명으로 10년 새 30% 줄었다.

사망률 개선과 저출산 영향으로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2007년 35.3세에서 2017년 42.4세로 10년간 7.1세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 평균연령 증가 폭 4.7세(36.0→40.7세)보다 크다.

보험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 가입자는 늘어난 반면 30대 미만에선 줄었다. 지난 2017년 60세 이상 비율은 10년 전 대비 4.3%포인트, 40~50대는 3.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0~30대는 5.2%포인트, 20세 미만은 2.6%포인트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금통위 의사록, 텍스트마이닝하면 금리 예측가능”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 텍스트 자료에서 육안으로 읽고 분석하기 힘든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출한 지수는 여타 변수에 비해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금통위 의사록에 담긴 어조를 추출해 지수로 편제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추정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분석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7년 12월 중 신문기사 약 23만건과 채권 애널리스트 보고서, 금통위 의사록을 대상으로 형태소 조합 분석을 통해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성사전은 예를 들어 '금통위 금리인상'을 매파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등장 여부나 횟수로 극성(polarity)을 규정한 사전이다.

분석 결과 금통위 의사록에서 텍스트 마이닝으로 추출한 지수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 또는 UI(Uncertainty Index)의 불확실성지수 등에 비해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20개국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가지 용어가 포함된 기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다.

보고서는 "텍스트 마이닝이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 의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통화정책 관련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텍스트 마이닝으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지수화하면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어조나 강도가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 벤처기업 대상 200억 규모 복합대출 출시

산은 '벤처 스케일 업 복합대출'

산은은행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합한 '벤처 스케일 업(Venture Scale-up) 복합대출' 상품을 2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벤처·중소기업이면서 최근 1년 내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후속 투자유치가 예상되는 기업에 20억원 한도에서 대출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지원한다. 대출은 0.5%포인트(음선부 대출은 1.2%포인트) 금리 우대가 붙는다.

산은은 "창업 초기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



서울 여의도 KDB벤처산업은행.

채를 통해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대출과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복합금융 상품으로, 미국 등에서 취급하는 구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